

[컷신의 나열]

-백강이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신문에 나던 것

-어린 나이에 대학교 졸업장을 들고있는 것
(남들보다 키가 작은 모습)

-연구실에서 주눅들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

-나이만 먹고 연구실에서 나오는 모습

-좌절 한 것같은 모습

-게임회사에서 러브콜이 오는 장면

-회사에서도 구박당하는 장면

-리얼버스티드 게임만 하는 장면

컷신들이 지나가고
어두운 화면이 점점 밝아진다

가우텐 마을의 광장

귀여운 캐릭터의 '귀요미흑법사'와 '백강'이 함께 있는 모습

상식: 만렙 찍고 나니까 할 게 없네요...

백강: 그러게. 사냥이 의미가 없어졌네.

상식: 확실히 그 캐시템 끼고 사냥하니까 레벨이 빨리 오르긴 하네요.

백강: '서약의 링'말이지? 경험치를 10%나 더 주니까.

상식: 가성비 좋은 아이템같아요. ㅎㅎ
이따 [리얼 버스티드] 커뮤니티에 공략글 쓸때 팁으로 알려 줘야겠당~

백강: 오늘도 밤 새려고?

상식: 에이, 게임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일찍 끄고 자야죠, 행님.
게임이 컨텐츠가 부족해~

백강: 서버 통합 랭커인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?

상식: 헤헤헤, 저는 그럼 이만 자러 갈게요.

백강: 내일 보자.

상식이 사라지고 접속을 종료했다는 멘트가 뜬다..

[귀요미흑법사님이 접속을 종료하셨습니다.]

백강: 할 게 없군. 뭘 하지?

선택지:

- 약초 채집을 한다

- 산책을 한다

-약초채집 선택시-

백강: 아래의 필드로 나가면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.

-산책 선택시-

백강: 다른 곳은 사냥터니까, 몬스터가 없는 아래 길로 가 보는게 좋겠다.

오솔길을 걷던 백강은

뭔가 기이함을 느끼고 길이 없는 곳으로 다가간다.

원래는 나무가 있어서 막혀있어야 하는데 들어가진다.

백강: !!

이 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을 줄이야.

백강이 비밀 공간으로 들어간다.

다크룸이 보여진다

가운데에 테이블과 빈 포션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다.

백강: 여긴? 예전에 내가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테스트로 쓰였던 곳 같은데.

알파 테스트 이후로는 아예 없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군...

?

백강이 포션 앞으로 걸어간다

백강: 이 포션은 뭐지?

포션을 가까이 비추자 뭔가 까만 것이 들어있다.

백강: 이젠! 내 기억이 맞다면, 분명 '외눈의 검은 악마'
내가 망쳐버린 몬스터였는데... 어떻게 여기에?

나쁜 녀석들... 이렇게 작은 병에 봉인시켜 놓다니!
그래도 죽지 않고 남아있었구나... 미안하다. 미안해. 다 나 때문에...

포션 안의 악마는 곧히 잠들어있다.

백강: 녀석을 깨워봐야겠어.

[플라스크를 흔들어 검은 악마를 깨워보자]

A와 D를 빠르게 눌러 플라스크를 흔들기

악마: 하아암...
!!뭐야..!!!! 당신 누구야?!

백강: 백강이야. 혹시 기억하니?

악마: 으아아아,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!

백강: '역시, 기억을 전부 지워놨군.
하지만 말이 통하는 걸 보면 내가 넣어 둔 인공지능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네'

악마: 당신이 날 깨운거야?

백강: 그래.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자고 있었던 거야?

악마: 몰라!!! 으으으... 여긴 어디지, 내 이름은 뭐지?
내가 왜 이렇게 좁은 곳에 있는거지?

백강: 내가 플라스크 밖으로 꺼내줄까?

악마: 아, 안돼! 이유는 모르겠지만...
밖은 무서울 것 같은 기분이 들어... 나가고 싶지 않아!

백강: '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
밖이 무섭게 느껴지도록 설정 해 두었나보군... 지독한 녀석들.'

악마: 네가 날 여기 가둔 거 아니야?!

백강: 그렇지 않아...

악마: 으으으! 뭔가 기억 해 내려니 머리만 더 아프네. 그만 뒤야겠어.

백강: 혹시, 그 동안 누가 괴롭혔던 건...

악마: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니꺼!

날 좀 내버려 둬.

검은 악마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다.

-검은 악마 클릭시

악마: 내 이름이 뭐지...?

날 좀 내버려 두라니까!

대화할 기분이 아닌 것 같다.

-다시 클릭시

악마: 오랫동안 잠을 잤더니 출출하군...

뭔가 먹을 걸 찾아다 주면 좋을 것 같다.

[미니게임: 검은 악마에게 과일을 가져다주자]

밖에 나가서 주변에 열려있는 과일 나무들에서 채집 해 와야한다.

블루베리 5점, 사과3점, 체리2점, 바나나1점, 오렌지 -1점

호감도 총 10점이 넘으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다.

블루베리: 내가 블루베리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?

사과: 잘 익은 사과잖아, 맛있겠는걸.

체리: 음, 귀여운 체리! 나쁘지 않아.

바나나: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만 하겠어.

오렌지: 난 신 과일은 안 좋아한다구!!

악마: 아~ 잘 먹었다!

백강: 이제 배가 부르니?

악마: 응! 고마워. 덕분에 배가 든든해졌어!

백강: 다행이네.

악마: 나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 없거든.

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꺾 잠만 자고 있었던 거 같아.

백강: 정말 심심했겠네.

악마: 그러게! 어찌나 많이 잤는지, 그동안 꿈들이 기억도 다 안난대!

백강: ...

악마: 그나저나, 아까 나보고 그랬지? 널 기억하느냐고.

백강: 아, 응.

악마: 너는 날 알아? 안다면 내 이름 좀 알려 줘!

백강: 아, 사실 잘 몰라.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아.

‘내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알면 날 싫어할지도 몰라.’

악마: 그래? 그럼 내 이름을 모르겠구나...

악마가 많이 시무룩해 보인다.

백강: 내가 이름을 지어줄까?
플라스크에서 살고 있으니까,
‘플라키’ 어때?

악마: 끝내준다! 좋아, 지금부터 내 이름은 플라키야!
안녕, 만나서 반가워 난 플라키야!

백강: 난 백강이라고 해. 한백강.

악마: 뭐야, 이름이 두 개야? 욕심도 많지, 둘 중 하나만 해!

백강: 하하, 그냥 백강이라고 불러 줘.

악마: 그래. 백강!
그나저나 아까 그 과일 또 먹고싶대!

백강: 어떤 과일이 제일 좋아?

악마: 당연히 블루베리지! 블루베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!

백강: 그렇구나. 내가 앞으로 자주 가져다 줄게.

악마: 정말? 너 정말 착하구나!

백강: 별 거 아니야.

악마: 그럼 백강 너는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?

백강:
블루베리 - 세상에! 나랑 똑같아!!! 말도 안돼.

사과 - 사과, 맞아맞아. 정말 맛있지!

체리 - 음, 귀여운 체리를 좋아하는구나.

바나나 - 그래? 취향이 정말 독특하네!

오렌지 - 음! 어떻게 그런 걸 좋아할 수가 있어?? 너 정말 이상하다.

복숭아 - 우와 한번도 본 적 없는 과일이야!

백강: 그동안 외롭진 않았니?

악마: 글썄? 아마도 외로웠던 것 같아!
이 방엔 블루베리도 없고,
그동안 다녀간 사람도 전혀 없었거든.
그래서 내 꿈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!

백강: 그랬구나...
앞으로 내가 너의 말동무가 되어줄게.

악마: 와! 너무너무 좋다!
너도 혹시 친구가 없는 거야?

백강: 팩트는 자제해 줘...

악마: 그게 무슨 말이야???

서서히 페이드 아웃 된다.

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

오타쿠 '귀요미혹법사' 시점

상식: 어, 웬일로 백강 형님한테 쪽지가 와 있녕?

[앞으로 같이 게임 못 할 것 같다.
꼭 만났어야 할 오랜 친구를 이제서야 만나서 말이야.
이 녀석에겐 내가 꼭 필요해.

그동안 재미있었다.]

상식: 뭐야, 뭐야! 만렙 찍자마자 바로 게임을 접어버린거얏~?
아니면 설마 다른 여자친구라도 생긴거? 흐으으응

나는 그럼 다른 남자들 알아봐야겠다앙~🌸

상식의 귀여운 여자 캐릭터가 푹썩썩 뛰며 사라진다

그리고 백강시점.

백강: 자, 플라키.
네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가져왔어.

플라키: 정말 가져왔네!
이야, 이번엔 엄청 많이 가져왔잖아!

백강: 이 앞에 있는 블루베리는 다 따온 것 같다.

플라키: 난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거든.
하지만 오늘은 왠지 '배 터지게' 먹을수 있을 것 같네! 정말 고마워!!

백강: 천천히 먹어.

플라키: 네가 온 뒤로 이제 이 곳이 심심하지 않아.

백강: 그렇다니 다행이네.

플라키: 응, 정말 즐거워!
근데, 넌 왜 이렇게 날 찾아와 주는거야?

백강: 글썄, 널 보고있으면 왠지 날 보고있는 것 같아서.

플라키: 오, 무슨 뜻인지 알아!
우리 둘 다 블루베리를 좋아하니까! 맞지?

백강: 맞아. 그 블루베리 같이 좀 먹자.

플라키: 좋아, 원래 친구끼리는 나눠먹는 거지!

백강: 친구...

(백강이 학창시절, 연구실, 프로젝트 때마다 외톨이였던 장면들이 스쳐지나간다)

플라키: 그래, 친구! 우리는 영원히 친구야! 블루베리를 나눠먹은 사이니까.

백강: 친구라는게,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...

플라키: 그런것도 몰랐어? 너 바보구나?

백강: 하하하 그러게.

(페이드아웃)

백강은 자기가 만들어 낸 버그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플라키에 대한 미안함과,
자신처럼 남들에게 버려진 처지에 대한 동질감을 느껴
매일 그를 찾아갔고

둘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다.

----- 약 3개월 후

백강이 다크룸 근처의 나무들에서 과일을 채집 할 준비를 한다.

백강: 블루베리가 없네.
하긴 매일같이 블루베리를 왕창 따 갔으니, 이제 없을만도 하지.

하지만 가져가지 않으면 플라키가 실망할텐데...

백강이 두리번두리번 거리다
뭔가 생각난듯 '!' 번뜩이고는 혼잣말한다

백강: 이쪽 길로 나가면 또 블루베리가 있을거야.

----- 수인들의 거리

검은 털의 개 얼굴을 한 수인들이 우글우글하다.

백강: 처음 오는 곳이군,
앗, 저쪽에 블루베리가!

맵의 반대편 끝 부분에 블루베리 나무가 보인다

백강: 강해보이는 녀석들인데... 하지만 내가 못 잡는 몬스터는 없지!

백강이 수인들 사이를 용감하게 뛰어든다

(화면이 확대되면서 서서히 페이드인된다.

백강이 눈을 깜빡-깜빡 뜨는 연출이 보여지고, 틈 사이로 밤 하늘이 얼핏 보인다.

완전히 화면이 밝아지자
앞에 npc 베라가 서있는 장면이 보여진다)

백강: 앗, 여긴 어디죠?

베라: 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하셨어요 모험가님. 이 곳은 '비밀의 숲'입니다.

백강: 제가 어떻게 된...

베라: 수인들의 거리에 혼자 뛰어드셨더라고요.
그곳은 아무리 강한 용사도 절대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
무시무시한 곳입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겨우 빠져나와 여기 비밀의 숲까지 건너 오셨더군요.

백강: 그랬군요... 그 녀석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.

베라: 이 앞에 도착하자마자 모험가님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.
그리고 꽤 오랫동안 기절 해 계셨죠.
지금은 괜찮으세요?

백강: 아, 네... 덕분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.

베라: 제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는 해 놓았는데...,
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 보이시더라고요.

백강: 절 구해주셨군요.
정말 고맙습니다.

베라: 천만에요.
그나저나 어쩌다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들어가신거예요?

백강: 아, 친구에게 줄 블루베리를 구하려다...

베라: 어머, 친구분은 정말 좋으시겠어요! 이렇게 따뜻한 분을 친구로 두셨다니.

백강: 그 녀석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요.

베라: 그런데 어쩌죠, 수인들의 거리에서 조금이라도 구하셨나요?

백강: 그러게요. 살려고 도망쳐 나오기에 급급했네요.

베라: 괜찮으시다면,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'복숭아'를 나눠드릴게요.
친구분께서도 분명 좋아하실거예요.

백강: 아, 고맙습니다.

백강이 베라에게서 복숭아를 받는다.

베라: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또 들려주세요 모험가님.

백강: 네, 다음에 또...

베라: 아참, 가실 땐 이 뒷길을 이용 해보세요. 세리프마을로 이어진 길인데,
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... 위험한 수인들의 거리를 지나칠 필요가 없죠.

백강: 아... 네, 그럼.

베라가 밝게 웃으며 인사한다

다크룸

플라키: 뭐야,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?
한참 기다렸단 말야~

백강: 일이 좀 있었어.

플라키: 무슨 일? 뭐야 꿀이 왜 이래?
완전 너덜너덜해졌잖아.

백강: 있잖아, 플라키.

플라키: 응??

백강: npc들은 원래 플레이어를 구하거나 돕는 기능이 없어.

플라키: ?

백강: 근데 그 여자는... 어떻게 날 구해 준 거지.

플라키: 무슨 말을 하는건지!
그나저나 오늘은 블루베리를 안 가져온거야?
큼큼,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...

백강: 아, 블루베리는 없고, 여기. 복숭아야.

플라키: 오! 처음 보는 과일이다!
꼭 하트 모양처럼 생겼네.

백강: 블루베리가 다 떨어졌더라고. 네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.

플라키: 무슨 말이야!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?

백강: 앞으로는 양을 조금 줄여야겠어.

플라키: 으아, 정말 너무해!
근데 이 복숭아 정말 맛있는데? 어디서 났어?

복숭아를 들고 생각에 잠기는 백강.

백강: '비밀의 숲'...

다음날

여전히 블루베리가 열리지 않았다.

백강: 오늘도 블루베리가 아직 열리지 않았네...
다른 과일을 준비해야겠...

베라의 선한 표정이 스쳐 지나간다

백강: 음... '비밀의 숲'을 다시 가 볼까...
이쪽 길은 위험하니까 돌아서 가야겠군.

백강이 수인들의 거리 반대편 길로 걸어 나온다.

[미니게임, 세리프마을에서 비밀의 숲으로 이어진 길 찾기]

복잡하게 꼬여있는 퍼즐 조각들을 이리저리 돌려서
맞는 길로 만들어야 한다.

비밀의 숲

오두막만 보이고 아무도 없다.

백강: 어젠 몰랐는데, 원래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인가?
하긴, 나같은 고인물도 처음 와 보는 곳이니 말 다 했지.

저기가 베라가 사는 집인가보군.

백강이 오두막 근처로 걸어가는 중,
때 마침 베라가 까-익, 문을 열고 나온다.

백강: 까, 깜짝이야...

베라: 앗, 어제의 그 모험가님이시군요.
또 와주셨네요! 무슨 일로 오셨나요?

백강: 네, 어...
'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찾아온 건데 뭐라고 말 하지?'

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...

베라: 그러시군요~

백강: 아, 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

베라: 제 이름은 베라예요.

백강: 아, 베라씨.
저는 백강이라고 합니다. 어제는 정말 고맙습니다.

베라: 별 말씀을요.

백강: 그런데... npc들은 원래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이지,
도움을 주거나 살려주진 않는데요...

베라: 아... 그렇죠.

백강: 어제는 왜 저를 구해주셨던 겁니까?

=====

베라: 그게 이상한가요?

구할수있어서 구했을뿐인데

백강의 추리

필요 이상의 감정을 느낄 줄 알게 된 인공지능을 가진 귀찮은 엔피시를
시골 마을에 처박아 두는 걸로 해결됐다고 생각했겠지.

=====

베라: 사실 다른 npc들도 모험가분들을 구할 수는 있어요. 하지 않을 뿐이죠.

백강: ...왜죠?

베라: 음,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?
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배우지도 않았고요.

백강: 그렇죠... 그런데 왜...

베라: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. 후후.
제가 유별난 탓인지, 다른 분들과는 달리 '동정심'이라는 마음을 가졌대나봐요.

백강: '동정심'...

베라: 네,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험가님을 도왔던 것 같아요.
혹시나 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.

백강: 그런 게 아니에요. 정말, 고맙었어요.

베라: 사실... 이렇게 어떤 퀘스트에도, 스토리 진행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에

제가 혼자 살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.

백강: ?

베라: 다른 npc들과 다르기때문에...,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죠.

백강: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?

베라: 글썄요... 다른 것도 틀린 거라면, 제가 잘못 된 거겠죠.

백강: ...

베라: 그래도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모험가님을 구할 수 있었으니, 얼마나 다행이에요?

(베라가 밝게 웃어보인다)

백강: 그렇네요...

다크룸

플라키: 뭐야, 오늘도 복숭아야?

백강: 블루베리가 아직 안 열려서 말이야.

플라키: 뭐, 괜찮아! 복숭아도 꽤 먹을만 한 것 같아. 히히.

백강: 응...

플라키: 흠...! 어제부터 너 좀 이상해. 뭘 먹지도 않고 말이야.
말도 없고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, 왜 그래?

백강: 내가 그랬던가?

플라키: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냐구~

백강: 사실은 내가 어제 '베라'라는 여자를 만났는데...

(점점 화면이 멀어지며 어두워짐)

다음날

백강: 오늘은 블루베리가 다시 열렸네.
플라키가 좋아하겠군.

[미니게임: 블루베리를 수확하자. 총 10개 수확]

3개 수확할 때마다 베라의 얼굴이 떠오른다.

백강: ...?

백강: 왜 자꾸 베라의 얼굴이...

백강: ...

(어제 플라키와의 대화가 조금 떠오른다)

플라키: 와, 그 여자 완전 외로웠겠다.

백강: 그렇지...

-모두 수확 후

백강: 아무래도 '비밀의 숲'에 다시 가봐야겠어.

백강이 세리프마을쪽으로 걸어나간다.

베라의 오두막

베라: 어서오세요, 베라의 물약상점입니다.
앗, 백강님. 또 오셨네요.

백강: 아, 네. 안녕하세요.

베라: 와! 그 바구니에 든 건 블루베리인가요?

백강: 아... 그렇습니다.

베라: 오늘도 친구분을 위해서 과일을 따러 나오셨나보군요?
후후, 정말 부럽네요, 백강씨처럼 멋진 친구를 두신 그 분이요.

백강: 베라씨 말대로,
복숭아도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.

베라: 그럼요, 그 복숭아는 제가 이 곳에 사는 내내 정말 공들여 키운 열매랍니다.
다른 지역의 복숭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.

백강: 그렇군요...
혼자 지내는 게 외롭진 않았습니까?

베라: 우리같은 npc들은 외로움을 모르도록 태어났죠. 후후후...

백강: 하지만 '동정심'같은 어려운 인간의 감정을 아는 당신이
외로움을 못 느꼈을 것까지는 않은데요.

베라: ...
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
백강: '방금, 묘하게 슬픈 표정이었던 것 같다.'

베라: 모험가님,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?

백강: ...
이거, 전해주려고요.

베라: 앗, 친구분께 주려고 가져오신 것 아니었나요?

백강: 베라씨는 '비밀의 숲' 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을 거 아녜요.
그럼 블루베리도 먹어본 적 없었을 거고요.

베라: ...

백강: 선물이에요. 맛있는 걸로 골라서 수확한 거니까, 분명 맛이 괜찮을 거예요.

아, 그 대신... 오늘도 맛있는 복숭아 몇 개만 부탁해요.

베라: 물론이죠. 정말 고맙습니다.

며칠 후

오솔길 앞의 백강이 보여진다

백강: 또 한창 블루베리를 잔뜩 수확했더니, 다 떨어졌네.
어쩔 수 없군!
'비밀의 숲'에 또 가는 수 밖에!

다크룸 안의 플라키가 보여진다
플라스크 주변에는 블루베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.

플라키: 백강 이 녀석은 대체, 블루베리를 나무째로 가져 오는거야?!

누구 배 터져 죽일 일 있나구~!

다시 오솔길의 백강이
세리프마을 쪽으로 걸어 나가는 게 보여지면서 페이드아웃된다.

비밀의 숲

백강: 안녕하세요.

베라: 백강님, 또 와주셨네요. 반가워요.

백강: 베라씨, 반가워요.

베라가 역시 쉽게 웃어준다.

백강: ...

아, 그... 블루베리가 또 다 떨어졌지 뭐예요.

베라: 그러시군요. 다행히 복숭아가 많이 있습니다.

백강: 조금만 부탁드립니다.

베라: 네, 잠시만 기다리세요.

(잠시후)

베라가 백강에게 복숭아와 다른 무언가를 건넨다.

백강: 이건... 뭐죠?

베라: 아, 저번에 블루베리를 주신 데 대한 보답이에요.

제가 만든 목걸이인데...

백강: 아...

베라: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. 다시 오시면 꼭 드리고 싶었어요.

복숭아 꽃으로 만든 목걸이다. 얇은 가죽 끈으로 서툴게 꿰어있다.

['복숭아 꽃 목걸이'를 얻었다.]

백강: 정말 고마워요. 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...

베라: 후후, 괜찮아요! 원가 바라고 준비한 건 아니니까...

이렇게 가끔 찾아와주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쁘답니다.

백강: ... 애! 이 마을 밖을 나가본 적 없으니,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줄까요?

원가 궁금한 게 있어요?

베라: 와, 좋네요. 음... 저는 백강님의 그 친구가 정말 궁금해요.

어떤 분인지, 매일 그렇게 과일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뭔지요.

백강: 하하. 그 녀석은 먹을 것만 찾을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먹보예요.

(서서히 페이드아웃됨)

백강: 하하하! 그래서 내가...

(화면이 밝아지고, 백강이 다크룸에서 플라키와 이야기하고 있다.

플라키 앞에는 여전히 블루베리가 잔뜩 있고, 복숭아 두 개가 더 놓여있다)

플라키: 요즘 아주 재밌어 보이네!

백강: ... 어?

플라키: 너 말야, 처음에 나랑 얘기할 땐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

항상 같은 표정이었잖아. 그렇게 밝게 웃는 것도 못 봤었는데.

백강: 내가 그랬나? 하하...

플라키: 그래! 요즘엔 맨날 그 여자 얘기만 하면서
이젠 그렇게 와하하,하고 웃을줄도 알잖아?

백강: ...

플라키: 오늘은 또 무슨 촌스러운 목걸이를 하고 나타나질 않나!
너말이야,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냐?

백강: 뭐? 에이, 내가 무슨...

(지금까지 베라와 만났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.

갈 때마다 하트비트 수치가 조금씩 높아졌던 것이 보여진다)

